

박람회 가던 승합차 터널 안 전소...사고차량 30m내 유조차·관광버스까지 ‘아찔’

경찰 신속·침착한 대처로 대형참사 막았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향하던 승합차가 터널 안에서 불이 났으나 차량 운전자와 경찰의 침착한 대처로 대형참사를 막았다. 승합차 화재 당시 터널 안에는 유조차, 관광버스 등이 섞여 있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우려됐었다.

2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방향에서 세계박람회 관람을 위해 여수로 향하던 15인승 현대그레이스 승합차(60·운전자 차모씨)가 여수시 율촌면 취적터널 안에서 불이나 전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1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뒤따르던 유조차, 관광버스 등에 탑승했던 100여명도 터널 밖으로 이동했다.

불이 나자 운전자 차씨는 터널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폭발음과 함께 큰 사고의 위험에 처했다. 당시 이 사고로 480m의 터널에는 시커먼 연기가 자욱했고,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차량이 계속 터널로 밀려들면서 연쇄사고의 가능성도 높았다. 특히 유조차 2대와

관광버스 1대도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60m 떨어진 곳에 멈춰있었다.

때마침 여수 세계박람회 교통지원근무를 위해 부근을 지나던 나주경찰 소속 교통경찰관 최기원·신병연 경사가 사고를 직감하고 갓길을 통해 현장에 접근한 것이 사고 10여분 뒤인 오전 8시40분께, 이들은 여수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한 뒤 신속하게 교통을 정리했다.

최 경사는 “당시 터널안은 사고차량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였으며 시야 확보도 어

려웠다”며 “가까운 거리에 있던 유조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들은 뒤이어 도착한 영광경찰 문병일 경사, 이경철 경장과 함께 차량들을 터널 밖으로 이동시켰다.

탑승자가 대피한 9분 뒤에 차량은 ‘펑’소리를 내며 2차 폭발로 이어졌고 오전 9시20분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진화됐다.

이 사고로 터널안이 혼잡을 이루면서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향하는 차량이 우회하는 등 인근 도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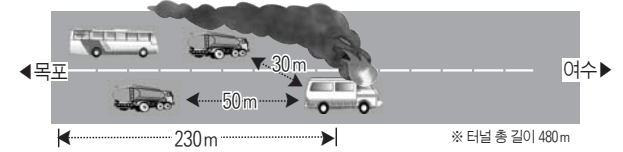
1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터널안과 입구는 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다”며 “승합차가 폭발하면서 전소돼 대치가 조금만 늦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이번 화재사고가 엔진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차모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여수 취적터널 차량 화재 개념도



지난 26일 여수시 율촌면 취적터널 안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전소된 승합차량이 터널밖 갓길로 옮겨져 있다. (여수소방서 제공)

현정화 감독과 영화 ‘코리아’ 관람한 강운태 시장

“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 위해 노력하겠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영화 ‘코리아’의 실제 주인공인 탁구선수 현정화(현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씨와 영화감독 문현성씨를 초청, 광주의 한 극장에서 함께 영화관람을 했다.

강 시장은 석가탄신일이다 연휴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영화관람에 나선 것은 이 영화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지난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배경으로 한 ‘코리아’는 사상 최초로 구성된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46일간 함께 울며 웃었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강 시장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남북단일팀 성사에 공을 들여오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도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만큼 하계U대회는 우리 민족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단일팀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광주 서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코리아’를 관람하기 전 영화속 실제 주인공인 탁구선수 현정화씨와 영화감독 문현성씨로부터 한반도기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시제공>

하계U대회에서는 지난 2003년 대구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성사는 불발됐지만 북한의 미나 응원단이 방문,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북한 체육

지도자들과 교류가 잦은 현 감독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 등 남북 간 스포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도, 서울에 귀농·귀촌센터 운영

전남도는 수도권 도시민들의 귀농과 귀촌 지원을 위해 최근 서울에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귀농 귀촌 상담센터는 서울시 마포

구 공덕동 태영빌딩 7층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마련됐다.

상담센터에서는 수도권 귀촌 희망자에게 지원사업 내용, 농촌 정착 성공 요령, 고소득 작목 추천 등 귀농에

따른 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남지역은 깨끗한 자연환경, 토지와 주택가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귀농비용 등이 장점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장점을 귀농유치에 적극 활용, 지난해부터 서울역 등 수도권에서 10여차례 ‘찾아가는 귀농설명회’를 열었다. /정필수기자 bungy@

황지해씨 ‘DMZ 정원’
첼시플라워쇼 2관왕

지난 26일(현지시각) 폐막된 세계 최고 권위의 정원·원에박람회인 첼시플라워쇼에서 한국의 ‘DMZ 정원’이 회장 특별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영국 왕립원예협회(RHS)는 이날 한국인 정원디자이너 황지해(35·여)씨의 ‘DMZ 금지된 화원’을 올해 신선했 회장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RHS 회장은

정원과 원예, 플라워쇼 등 모든 참가 부문에서 회장이 선정한 한 작품에 주어진다. DMZ를 정원으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이에 앞서 전시회 최대 경쟁부문인 쇼가든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아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엘리자베스 बैंक्स RHS 회장은 “DMZ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지해 작가는 “출품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러 곳에서 영구 보존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런던올림픽 성화 봉송 구간에 위치한 런던 공원부지에 기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故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부적절 개입 있었다”

감사원 “국가보훈처, 심의위 서면심의 관여”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국

가보훈처 A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국장은 심의위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의결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장은 심의의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남해안 관광발전, 31개 단체장 31일 모인다

남해안을 긴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남과 부산과 경남 등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남해안 연접 31개 시군 단체장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는 오는 31일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인 엠블호텔에서 초광역(超廣域) 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올 연말 사업이 종료되는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의 연장과 확대, 남해안 선벨트 사업지구 내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목포~부산 KTX 노선 조기 건설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절대 부족한 시내 면세점과 숙박시설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으로 전용 카지노 허가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남해안 특성을 살린 유람선과 국제·연안 크루즈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 수자원보호와 해상국립공원 개발제한 등에 묶여 남해안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벨트 사업의 정상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주폴리 현상 공모

광주시는 “2012년 광주폴리 1개 작품을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현상설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현상공모의 콘셉트는 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광주 도심의 여러 장소를 이동하거나 조합, 변형돼 설치될 수 있는 폴리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접수하는 이번 공모의 심사 결과는 6월중 발표되며 최우수작품은 설계권과 함께 광주시장 표창 및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상품화를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세계 100대 건축가의 11개 광주폴리 작품을 설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고 RIS-2012-001]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 2012년 기업지원사업과제 공모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신 에너지 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 신에너지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판매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지원분야

가. 태양 에너지 분야 (셀, 전지 모듈, 컨버터, 추적장치 등)
나. 수소 에너지 분야
다. 기타 신 에너지 관련 분야
라.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력 및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
※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 가산점 부여

② 지원사업

공동브랜드 제품개발지원, 예로기술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소재/공정 효율화지원, 분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전시회참가지원 (작품제작), 홍보활동지원, 기술경영멘토링, 기술성·사업성평가지원 등

③ 지원기간

2012년 7월 ~ 2012년 10월

④ 사업비

지원사업별로 평가 후 차등 지원 (사업종료 후 수익금 납부)

⑤ 신청기간

가. 1차 : 공고일 ~ 2012년 6월 11일(월) 18:00 까지
나. 2차 : 기업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⑥ 신청자격

광주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⑦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디스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참여기업 협약서, 견적서,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등

⑧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사업단 홈페이지(http://jnuris.chonnam.ac.kr) 공지사항의 지원신청서 사식에 의해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jnuris@chonnam.ac.kr) 또는 방문 신청
나. 접 수 처 :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학협력공과관 306호 신에너지RIS사업단
다. 문 의 처 : 사업단 기업지원실 (☎ 062-530-1992, 담당자 민병준)

⑨ 기타사항

지원업체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2년 05월 25일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장

가정에서 준비 할 건강 필수 도서

직장·노인정·복지관·학교



※천금출판사 (책 만들어 드림)

1~12 함께 194,900원

건강에 좋은 도서 보금문의

천금 건강 주문 문의 ☎ 053)746-7733, 746-7734 / Fax 053)746-7735
010-5050-7333 / 신한은행 : 110-314-278685 임보미